



쿠팡  
체험형 뷰티쇼핑  
신세계 열다  
L1



Life

주사 대신  
먹는 비만치료제  
‘게임체인저’로  
L2



# 해운대 백사장을 캠퍼스로… “모래로 38년 인생 조각했죠”



새벽을 여는 사람들

## 모래조각가 김길만 씨

모래는 쉽게 무너지고, 바람에 흩날리며, 비에 녹아 사라진다. 하지만 김길만 모래조각가에게 모래는 단순한 자연의 재료가 아니다. 자신의 삶을 투영하는 매개체이자, 끝없이 도전하게 하는 삶의 동반자이다. 모래조각 창시자에서 한국모래예술학교 이사장까지 걸어오기 위해 그는 모래 위에 예술을 세우고 무너뜨리기를 반복했다.

### ◆모래조각 30년 인생… 해운대 백사장이 캠퍼스

“모래는 누구나 만질 수 있지만, 아무나 예술로 만들 수는 없다. 누구나 가지고 놀 수는 있지만 나처럼 잘 가지고 노는 사람은 드물다.”

김 작가의 자부심이 드러나는 한 마디다. 국내 최초의 모래조각가로 평가받는 김 작가는 이 분야의 창시자이자 개척자다. 1987년, 우연히 시작된 그의 모래조각 예술은 벌써 30년을 훌쩍 넘겼다. 김 작가는 미술을 깊이 있게 배운 적이 없었고, 모래조각도 독학해야만 했다. 1980년대에는 모래를 주제로 한 작품활동을 찾아볼 수 없었다. 김 작가는 “나는 미대 출신도 아니고, 제도권에서 공부를 하지 못했다”며 “해운대 백사장이 나의 대학 캠퍼스이고, 칠판이고, 지금까지 이끌어 준 지도 교수님”이라고 말했다.

사실 김 작가가 모래와 인연이 닿게 된 것은 금전적인 이유도 한 몫을 했다. 예술을 하고 싶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4남매 중 장남이었던 그는 동생들 공부와 어려운 가정 형편을 책임져야 하는 기동과 같은 존재였다.

초·중·고등학교를 부산에서 나온 김 작가는 해운대 백사장장에서 뛰다니며 청소년 시기를 보냈다. 그러던 중 모래를 보고 자신의 표현 욕구를 함껏 발산시켰다고 한다. 돈도 들지 않았고, 상상을 자유롭게 분출할 수 있었기에 김 작가에게 안성맞춤이었던 것이다. “해운대 백사장 모래가 주는 촉감이 정서적 치유에 도움이 되는 기분이었다”며 “모래를 밟고 만질 때 많이 행복했다”고 회상했다.

김 작가가 모래조각에 인생을 바친 대가는 고독함이었다. 일찍부터 모래조각에 몰두한 나머지 친구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여행이나 사교활동도 극히 드물었다. 김 작가가 말하길 젊었을 때 친구들과 대부분은 “모래에 미쳐서 쓸데없는 고생을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그는 묵묵히 모래를 만졌다. 여전히 “그래도 나는 모래가 좋았다. 모래가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친구였고, 장난감이다”라



김길만 모래조각가(한국모래예술학교 이사장).



김길만 모래조각가가 어린왕자를 조각하고 있는 모습.



1987년부터 모래조각 시작한 개척자  
어려운 형편에 예술 접고 백사장으로  
모래 밟고 만질 때 정서적 치유 느껴

날씨 영향에 공들인 작품 무너지기도  
실패 거듭하며 더 단단한 예술혼 담아

한국적인 요소 담아 한국문화 알리고파  
100미터 달하는 용 모래조각 도전 준비

고 말하는 그다. 그에게 모래는 단순한 재료가 아닌 인생의 동반자였다.

### ◆무너진 성 위에 다시 예술을 조각하다

김 작가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으로 꼽은 것은 ‘공주님의 성’이다. 바닷가가 아닌 양산의 한 동네에서 시도한 모래조각이었다. 당시 폭우가 쏟아지면서 20일 가까이 공들여 만든 작품이 순식간에 무너졌다고 한다. 그는 “오래 걸리기도 했고, 시행착오 끝에 완성한 작품이라 기억에 많이 남는다”며 “큰 규모의 모래성을 혼자 만들어 가고 있었는데 한 방에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작가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공주님의 성을 완성시켰다. 작품을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한 달 이상이 소요됐다고 한다.

보통 대형 작품들은 열흘에서 한 달 정도, 소형 작품들은 3~4일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대형 작품들은 작업 기간이 길다보니 중간중간 작품 훼손 우려가 도사리고 있다. 이 때문에 김 작가는 작업 현장과 가까운 주변에 숙박하거나 텐트를 치며 정성을 다하는 편이다. “해변가에서는 현장의 모래를 기초로 사용한다. 작품 활동에는 딱모래 재질, 점성이 있는 모래가 작업하기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보통 건설자재와 관련해 모래 취급하는 업체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빌려서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모래는 자연의 재료인 만큼 작업 환경도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점차 날씨에 대응하는 능력도 향상됐다. 물품을 이용해 가벼운 코팅 작업을 해 두면 손상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도심 속 공원이거나 내천 주변 등은 지자체와 협의해 모래 재료만 구해지면 작업 환경이 수월한 편이라고 한다. 하지만 김 작가의 작품이 시작됐던 바닷가의 경우에는 모래바람과 태양 등으로 인해 작업 집중력을 약화시킨다.

김 작가는 “아무래도 이런 작업을 하다보니 실패한 작품도 너무 많고, 정작 마음에 드는 작품은 얼마 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모래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다시 만질 수 있고, 실패를 거듭했기 때문에 이렇게 완성도 있는 모래조각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무너짐을 두려워하지 않고 작품을 대하는 단단한 예술혼이 느껴졌다.

스스로 성장해 온 그는 이제 후배들을 양성해 모래조각을 가르치기 위해 ‘한국모래예술학교’를 설립했다. 김 작가는 “대학 내에 모래예술학과 전공이 없어서 많이 아쉬웠다”며 “한국 최초 모래조각 창시자로 활동해 온 노하우와 전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눈을 빛냈다.

### ◆‘나’의 작품에서 ‘한국’의 작품으로

김 작가의 작품은 하나하나에 이야기가 깃들여 있다. 그 중 ‘어린 왕자’는 한 친구의 부탁에서 시작됐다. 그는 “글을 쓰던 친구가 어린 왕자를 좋아했는데, 책을 한 권 내고 싶었는데 삽화로 어린 왕자를 만들어서 찍어 보내 줄 수 있냐고 부탁했다”며 “작지만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작품 중 하나다. 마치 내가 어린 왕자를 모래로 불러낸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고 웃었다.

‘모나리자’도 특별한 이야기를 품고 있다. 김 작가는 “모나리자가 가장 청순했을 때가 언제였을까, 그런 상상에서 출발했다”며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건 17세의 모나리자”였다고 설명했다. 어떤 작품을 만들더라도 자신의 예술적 개성을 담아, 자신의

모래조각을 완성하고자 노력하는 그다.

최근에는 한국적인 요소를 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해운대 모래 축제에서 보면 외국 작가들은 조국에 대한 문화를 참 잘 표현하는데, 나를 비롯해 한국 작가들에게서는 의외로 그런 작품이 드물다”며 “한국 작가가 한국 작품을 한국 세계 작품화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뒤늦게 깨달았다. 이제는 토속적이면서 한국적인 작품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때마침 경주 문화원에서 ‘경주국가 유산야행’ 행사 때, 신라 시대 유물을 모티브로 한 모래조각 제의가 들어왔다고 한다.

김 작가는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기후위기 환경 대응 주제로 활동 영역을 넓혀 가고 싶다”며 “요즘 K-콘텐츠, 한국 문화가 전세계적으로 열풍이라 해외 초청 의뢰도 많이 받는 편”이라고 말했다. 지난달에도 중국 청도 관계자와 문화예술교류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 중국 칭따오에서 세계맥주 축제와 연계한 모래작품 전시 기획을 위한 중국 출장도 예정돼 있다고 한다.

지금 그는 세계 최초로 100미터에 달하는 대형 용 모래조각에 도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김 작가는 “대형 용 기네스에 도전하기 위해 예산도 측정해 보고, 장소도 물색하면서 알아보고 있다”며 “전국의 해수욕장이 개장되기 전에 실행해 뉘기고 싶다”고 설명했다. 길게 뻗은 용의 몸통과 거대한 머리를 어떻게 조형할지에 대한 세부 구상도 마쳤다.

김 작가는 “물리적으로 아직 힘이 남아 있을 때, 힘이 다 빠지기 전에 내가 하고 싶었던 예술을 다 도전해 보고 싶다”며 “한 한국 화가가 나이가 들어도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그림이라고 했던 말이 떠오른다. 나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가 허물어짐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끝내 모래 위에 자신만의 세계를 세웠다. 김 작가의 다음 도전이 기대와 확신으로 앞서는 이유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메트로 한줄뉴스



▲‘발 부상’ 손흥민, 22일 노팅엄전도 결장…“휴식이 중요해”  
▲한화 노시환, 3경기 연속 대포 가동…통산 100호 홈런

/사진 뉴스시스

▲2경기 연속 무너진 롯데 김진욱, 1군 엔트리 제외…삼성 김지찬 복귀  
▲수원FC 꺾은 FC안양…최대호 시장 “이제 우리 유니폼 입으셔야죠”

▲연극 ‘카포네 트릴로지’…6월 7일까지 6일 연장 공연  
▲한국현대무용협회 신인데뷔전…27팀 본선 진출